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지 면) 9. 25.(수) 석간
(인터넷) 9. 25.(수) 06:00

중소벤처기업부 우수 청년인턴 시상식 개최

-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우수팀(5개) 및 활동 수기 우수자(1명) 등 우수 청년인턴 19명에게 장관상 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5일(수), 중기부 중기마루 회의실에서 **'우수 청년인턴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청년에게 공직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의 의견을 중소기업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 8월까지 **총 103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였으며,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정책현장방문,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활동 수기 공모전, 직원과의 1대1 멘토링 등을 추진해 왔다.

* '24년 채용 목표 : 118명('23년 대비 90명 증원)

이날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입상한 5개팀(19명)**과 **활동수기 공모전 우수자 1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청년인턴에게 정책과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경진대회에는 **총 50여명이 13개팀을 이뤄 참여**하였다. 13개팀이 지난 6월부터 자료연구, 설문조사, 2030자문단*의 멘토링 등을 거쳐 **2개 분야(정책제언, 정책홍보)의 26개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분야별 3개팀이 우수팀으로 선정**되었다.

*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20대와 30대로 구성된 정책 모니터링단

'온누리상품권 이용률 제고를 위한 연령대별 맞춤형 서비스 도입' 정책과 **'인터렉티브 콘텐츠를 활용한 정책 홍보'** 방안을 기획한 **소리꾼***이 **2개 분야 모두 최우수팀으로 선정**되었다.

* **소**상공인 정책 **리**뉴얼**꾼**(한혜림, 송유정, 이성길, 임민섭, 김보경 인턴 등 5명)

한편, **활동 수기 공모전**에서는 로컬크리에이터와의 인터뷰를 거쳐 홍보물을 제작한 경험을 수기로 작성한 **한혜림 인턴(소상공인성장촉진과)이 우수자로 선정**되었다. 창의적인 홍보방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홍보물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어진다는 내용을 수기에 담아내었다.

경진대회 2개 분야와 공모전 등 3관왕을 차지한 **한혜림 인턴**은 "6개월간 근무하면서 평소 관심이 있었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라며 "특히 경진대회는 정부 정책에 대해 고민해 보고 정책 결정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시상식 이후에는 **조경원 창업정책관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청년인턴이 공직을 체험하며 느낀 소감과 진로·취업 등 청년의 고민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청년의 시각에서 제시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며 "청년인턴들에게 중기부에서의 경험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창업정책관 청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민숙 (044-204-7950)
		담당자	주무관	김준엽 (044-204-7955)
			주무관	윤지호 (044-204-795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1 중소벤처기업부 우수 청년인턴 시상식 개요

□ 목적

○ 경진대회 참여 우수 청년인턴 **시상**을 통해 청년인턴의 **사기진작 및 조직에 대한 만족도 제고**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4.9.25.(수), 11:00~12:00 / 중기부 6층 중기마루

○ **(참석자)** 창업정책관, 청년인턴, 청년보좌역 등 **20여명**

○ **(주요내용)** 시상식 및 창업정책관과의 대화

- **(시상)** 경진대회 참여 **우수 인턴 시상**(총 7점)

< 청년인턴 대상 경진대회 개요 >

구분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활동 수기 공모전
목적	청년의 참신한 시각을 정책에 반영	청년인턴 업무 경험과 소감 공유
분야	정책제언 / 정책홍보	활동 수기
참여	13개팀(54명)	18명
규모	6점(분야별 3개팀)	1점(개인)

- **(우수작 발표)** 경진대회 **최우수과제**(2개) 및 **활동수기 우수작**(1개)

- **(간담회) 청년인턴**이 중기부에서 근무하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진로·취업 고민 등을 **창업정책관과 자유롭게 대화**

○ **세부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1:00 ~ 11:03 (03')	◦ 창업정책관 인사말씀	-
11:03 ~ 11:15 (12')	◦ 상장 수여 및 기념촬영	장관상 7점
11:15 ~ 11:30 (15')	◦ 우수작 발표	총 3명
11:30 ~ 12:00 (30')	◦ 창업정책관과의 대화	-

참고2 청년인턴 경진대회 우수작 목록

□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우수과제

구분		팀명(팀원수)	주요 내용
정책제언 (3)	최우수	**소리꾼**(5) * 한혜림(소상공인성장촉진과), 송유정(글로벌창업팀), 이성길(소상공인재도약과), 임민섭(서무복지팀), 김보경(전통시장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이용률 제고를 위한 연령대별 맞춤형 서비스 도입** 1. (청년층) 성인 기념 온누리상품권 증정 2. (중장년층) 만보기 적립 및 온누리길* 마일리지 적립 *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밀집 구역을 지정 3. (노년층) 온누리 메이트 운영 및 큰글씨 모드 제작
	우수	**052**(2) * 김도연, 하유진(울산청)	**중소기업 이주노동자 교육용 AI 통번역 지원을 통한 정부-중소기업-AI 혁신기업의 동반성장** 1. (정부) AI 활용 사업 확장, 안전 교육효과 제고 2. (중소기업) 안전관리 효율화, 통번역 비용 감소 3. (AI 기업) 안전산업 진출
		울산업(3) * 김현우, 황혜림, 허윤서(울산청)	**스타트업 – 투자사 플랫폼 구축** 1. (제공) IR홍보영상, 번역서비스, 디지털 명함 전송서비스, 법률 및 컨설팅 등 제공 2. (기대효과) 시공간 제약 극복, 스타트업-투자사 네트워크망 형성 및 정보 격차 해소
정책홍보 (3)	최우수	**소리꾼**(5) * 한혜림(소상공인성장촉진과), 송유정(글로벌창업팀), 이성길(소상공인재도약과), 임민섭(서무복지팀), 김보경(전통시장과)	**인터렉티브 콘텐츠를 활용한 정책 홍보** 1. (유형테스트) 질문을 통해 유형별 결과 제공 2. (인터렉티브영상) 영상진행방향과 결말이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콘텐츠 3. (오프라인 홍보) 중기부 행사 시 체험부스 설치
	우수	**POPO**(3) * 김가민, 김은채, 신우진(강원청)	**백년가게 스탬프투어** 1. 백년가게 스탬프투어앱(지역, 음식, 테마 카테고리) 제작 2. 백년가게에 설치된 NFC 태그 후 스탬프투어 시작 3. 지역관광지 및 축제 연계 소개, 온누리상품권 제공
		중진스(6) * 김로빈, 심현진, 윤성희, 이수영, 이하연, 전민혁(서울청)	**전통시장 내 MZ세대 고객 유입을 위한 증강현실('캐치폴리시') 활용 홍보** 1. 캐치캐치 챌린지와 AR(증강현실)을 결합한 콘텐츠 도입 2. 캐치폴리시 게시글 확인 → 장소 탐색 → AR플랫폼 접속 및 콘텐츠 체험 → 경품 수령을 통한 소비촉진

□ 활동 수기 우수작

소속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성명	한혜림
제목	**“창의성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활동수기	**“창의성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깊은 고민에 빠지게 했던 이 물음은,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인턴 면접에서 받았던 질문이다. 대개 사람들은 창의성이라 하면, ‘새로운 것’이나 ‘독창적인 무언가’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약 6년간 홍보의 길을 걸어오며 창의성을 갈구했던 학생으로서, 또 중기부 청년인턴 홍보 직무에 지원했던 면접자로서, 나 역시 그랬다. 그러나 중기부 청년인턴으로 지냈던 지난 4개월의 경험은, 본 물음에 대한 나의 생각에 깊이를 더한다. **[탐구 : 첫 인턴 생활을 시작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나의 첫 인턴 생활을 시작하게 된 부서였다. 로컬크리에이터,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 낯설지 않은 용어들을 마주하며,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외려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고등학생 시절, 나는 지역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와 로컬브랜드에 매력을 느꼈다. 로컬크리에이터로부터 시작해 해당 시장 선도 기업으로 거듭난 사례를 탐구하며, 중기부의 역할과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그렇기에 중기부 청년인턴 1기 공고를 확인한 직후 나는 주저 없이 휴학을 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홍보 직무로 근무하며, 중기부의 사업들을 창의적인 홍보물로 공중에게 알리고 싶었다. 입사 후, 한 달 동안은 인턴으로서 기본적인 역량을 쌓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나의 첫 업무는 로컬 관련 해외 기사 자료를 요약 및 보고 하는 것이었다. 한글보다 워드를, 워드보다는 피피티를 애용하는 대학생으로서, 공문서 양식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업무는 매번 새로운 도전이었다. 사무실 내에서의 업무 경험뿐만 아니라, 출장을 통해 방문했던 현장에서도 배울 점이 많았다. 보도자료에서만 보았던 ‘댄싱사이더’, ‘옥희방앗간’ 등의 로컬크리에이터들을 직접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값진 경험이었다. **[발견 : 창의성의 근원을 찾아서]** 한 달 후, 나는 그토록 기다려온 홍보 업무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었다. 게임 속 소상공인 캐릭터가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받고 성장하는, 귀여운 스토리라인과 디자인으로 첫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 왠지 모를 아쉬움이 느껴졌다. 보도자료에서도 충분히 접할 수 있는 정보를 귀엽게 정리한 것이, 진정으로 청년의 창의성을 발휘한 홍보물인지 의문이 들었다.		

	마음 한구석에서 의문이 커지던 중, 나는 뜻밖의 곳에서 해답을 찾았다. 청년인턴 정책현장방문을 통해 만났던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현장 실무자와의 대화가 그 해답이었다. 뿌리산업이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초산업임에도 불구하고, 3d업종이라는 인식 때문에 청년층이 취업을 기피하여 산업을 이끌 인력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대화를 통해 뿌리 산업의 중요성에만 맞췄던 초점을 문제점으로 넓혔고, 그 결과 뿌리 산업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흥미를 자극하는 카드뉴스 디자인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조합하고 녹여내 사업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창의적인 홍보물이 아닐까? 즉, 창의성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창의성의 핵심은 ‘재발명’이며 이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떠올리지 못했던 상자 너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으면서도 보지 못했던 상자 속에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상자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찾았다. 그 무렵, 중소기업유통센터 홍보팀장님으로부터 동행축제 서포터즈 대표로, 라이브커머스 현장을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 출연 제의를 받게 되었다. 낯가림이 심한 나에게 영상 촬영은 큰 도전이었고, 입사 직후 ‘중기부 공식 유튜브’에서 사업 홍보를 위해 개사한 ‘밤양갱’ 노래를 부르고 촬영 울렁증을 얻게 된 나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판단하여 용기를 내기로 했다. 동행축제 라이브커머스에서 실시간으로 동행축제의 취지와 의미를 전달한 경험도 기억에 남지만, 무엇보다 발안농협 조합장님과의 다대일 인터뷰가 인상 깊었다. 조합장님께서 걸어오신 발자취, 판매농산물의 개발 과정, 그리고 동행축제가 판로 지원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까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긴 인터뷰 끝에 나는 확신했다. 인터뷰야말로 단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최적의 도구라는 것을. 그렇게 나는 두 가지 추진 사업, ‘라이콘타운’과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홍보물 제작에 인터뷰를 적극 활용하기로 결심했다. **[적용 : 창의적 홍보의 구현을 위해]** 다만, 이 결심을 가로막는 두 가지 난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첫 번째 난관은, 앞서 언급했듯이, 나의 낯가리는 성격이었다. 평소 주문을 위해 전화를 거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질 정도로 낯을 많이 가리는 나는, 짧은 시간 내 인터뷰이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일대일 인터뷰가 큰 도전으로 다가왔다. 올해 개소한 라이콘타운은 (예비)소상공인의 창업과 혁신을 돕기 위한 공간으로, 그 중요성에 비해 보도자료나 방문 후기가 매우 적다.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라이콘타운의 매력을 창의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진행이 필수적이라 판단했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와 논의 후 인터뷰 대상을 설정하였고, 두려움과 떨림을 동력 삼아 2주간 철저한 사전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다가온 인터뷰 날. 나는 버스에 몸을 싣고 조치원으로 향했다. 인터뷰는 걱정과 달리, 즐거웠다. 라이콘타운을 이용했던 로컬크리에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라이콘타운의 강점(eg.네트워킹)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조치원 상권에서 활동하는 로컬크리에이터들이 '네트워킹 공간 부재'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며, 라이콘타운의 필요성을 깊이 실감할 수 있었다. 라이콘타운 담당자와의 인터뷰에서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예비'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방문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이에 라이콘타운은 '예비'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공간임을, '라이콘 캐릭터'를 이용해 '친근하게' 알리는 것을 홍보물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 난관은 소진공 및 중기부 공식 SNS에 자유로운 홍보물 게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추가적인 업로드 플랫폼을 찾기 시작했던 건,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사업에 참여한 12개 지역대학의 교수•학생과 인터뷰를 진행하던 무렵이었다. 이때,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참여 학생과의 인터뷰에서 유용한 인사이트를 얻었다. 최근 유행하는 인스타그램 F&B 소개 계정처럼, 직접 계정을 운영하며 트렌디한 로컬크리에이터들을 소개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과장님께 홍보기획안을 송부드린 후, 그 길로 소상공인성장촉진과의 인스타그램 계정 @tol_ocal을 개설하게 되었다.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검색 기능을 주로 사용하는 MZ세대를 타깃으로, 트렌디한 로컬크리에이터와 관련 추진 사업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현재 로컬크리에이터 본인 또는 해당 가게를 방문한 손님이 사진과 함께 #로컬투로컬 해시태그를 포함해 게시글을 업로드하면, 해당 UGC를 가공해 완성된 게시글을 소상공인성장촉진과 SNS 계정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 릴스의 경우, 804회의 재생 수와 404개의 계정 도달을 기록하며, 자체적으로 만든 계정임을 감안했을 때 상당한 파급력을 보였다. 우리는 창의성을 갈구하지만, 막상 스스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야 할 때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보지 못했던 상자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상자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찾아, 다양한 목소리를 조합하고 녹여낸 홍보물을 제작했다. 그 과정에서 들었던 조언, 응원, 그리고 칭찬의 한마디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의 나에게 창의성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면, 지금의 나는 주저 없이 답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현장에 있다고.